



RWA Weekly

S&P500 무기한 선물, 하이퍼리퀴드에서 구현

▶ Analyst 최윤영 yy.choy@hanwha.com 3772-7402

S&P Dow Jones Indices가 TradeXYZ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면서 S&P500가 온체인 무기한 선물 형태로 확장됐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이퍼리퀴드에서 24/7 거래되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정산과 온체인 구조를 통해 기존 투자 접근 제약을 완화합니다. 이는 토큰화 범위가 원자재, 개별 주식에서 지수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무기한 선물의 규제 불확실성과 레버리지, 비 KYC 접근성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통 지수의 '디지털 네이티브' 확장

S&P Dow Jones Indices가 TradeXYZ에 공식 라이선스를 부여하면서 S&P500가 온체인 무기한 선물 형태로 확장됐다. 이는 단순 합성 자산이 아니라 'S&P의 공식 데이터와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토큰화 시도 대비 한 단계 진전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주요 지수 기반으로는 '최초의 공식 무기한 선물'이라는 상징성도 갖는다. Avantis 등 일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도 유사한 지수 기반 파생상품이 존재했으나, 이번 사례는 공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만기 없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어 기존 CME 선물과 달리 롤오버 부담이 없고, 가격은 펀딩비를 통해 기초자산과 연동된다. 이는 디지털자산의 무기한 선물 구조가 전통 지수로 확장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이퍼리퀴드, 24/7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 인프라

이번 상품이 실제로 구현되는 하이퍼리퀴드는 저지연 거래에 최적화된 온체인 파생상품 인프라로, 거래가 24시간, 365일 지속된다. 이는 전통 금융시장과 달리 시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주말이나 비거래 시간대에도 포지션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제공한다. 또한 별도의 중개 기관 없이 접근 가능한 구조로, 비미국 투자자도 별도의 브로커 계좌나 복잡한 절차 없이 레버리지 형태로 S&P500에 노출될 수 있다. 기존에는 규제, 계좌 개설, 거래 시간 등 다양한 제약으로 접근 과정에 마찰이 존재했으나, 스테이블코인 기반 정산과 온체인 파생상품 구조를 통해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하이퍼리퀴드에서는 원유, 금 등 원자재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 기반 시장까지 형성돼 있으며, TradeXYZ는 이중 온체인 RWA 파생상품 시장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로 빠르게 거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수까지 확장되는 토큰화 흐름과 규제 변수

이번 사례는 토큰화 흐름이 개별 자산에서 지수 레벨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국채, MMF, 개별 주식이던 토큰화 논의가 S&P500 같은 핵심 벤치마크까지 확대되면서 전통 금융의 주요 자산군이 온체인으로 유입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는 블랙록 등 주요 기관이 추진하는 토큰화 전략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이퍼리퀴드 같은 크립토 네이티브 인프라가 별도의 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행 구도를 형성한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규제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무기한 선물은 미국 내 규제 프레임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영역이며, 감독 당국도 관련 규제 준비를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레버리지, 비 KYC 접근성 등은 향후 주요 규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3월 19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윤영)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7.0%	13.0%	0.0%	100.0%